

# 불자 세상보기



IMF관리체제에 따른 고금리로 일부 계층이 금융 자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혜택을 받으면서 시차·낭비종조가 사회일각에서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일부계층이 사회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이들 부유계층의 자녀들이 강남의 유흥가를 가득 메우고 지갑같은 상황이 계속될 바라는 마음에서 '이대로'라는 건배구호를 외치며 흥청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불로소득은 마땅히 일정부분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분위기 저해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편집자 주)

## 장한머리 김묘희씨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암 투병 시아버지와 병환중인 시숙부 시숙모를 10여년 동안 극진히 간호했는가 하면 주위의 소년소녀 가정들을 10년동안 자기 아들처럼 돌보아온 40대 효행주부가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김묘희씨(44). 김씨는 지난 10일 시가 후원하고 신생윤리연구소(소장 김재곤)가 주최한 제34회 효행대회에서 '장한 머니'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 청부 폭력 날로 흉포해져

서울지검 강력부는 16일 빛을 대신 받아준다고 돈을 받고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해온 9개파 48명의 폭력배를 구속했다. 청부 폭력배들은 채무자를 납치해 때리거나 가족을 협박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묘지에 생매장 시키기, 5층 옥상에서 떨어뜨리기, 감물에 익사시키기 등 협박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포했다.

## 전교생에 '천원통장' 선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교생에게 1천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을 나눠줘 '제자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 변동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 정한규교사(52)는 박봉 속에서도 사재 1백30여만원을 털어 지난달 28일 전교생 1천3백여명에게 모두 1천원씩이 예금된 통장을 만들어 나눠줬다.

## '인륜 저버린 권리' 패소

대법원 민사2부는 12일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낸 물명도-퇴거 청구소송을 건 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20평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고철갑, 당도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김모(80)씨와 간염을 앓고 있는 셋째 오빠(42)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부유한 딸(46)이 "인륜을 망각한 권리는 없다"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

경기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상인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농수산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이웃사랑 나눔의 장터'를 개설해 화제. 농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깝게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11일부터 나눔의 장터를 개설했다.

## 설계도면 훔친 해고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회사가 개발중인 기계의 설계도면을 훔친 장모씨(28·무직)를 절도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기업인 S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조지폐 식별기 설계도면 20장을 훔친 혐의다.

## 병역은 돈없는 사람들만의 의무인가

# 가진자 빼돌려진 자식사랑 군 간부와 결탁 병무 특혜

'유전(有錢) 면제, 무전 현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돈 없고 힘없는 보통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눠 가져야 하는 집안이다. 최근 군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진 대규모 병무비리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 실태가 상당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병무비리 사건의 주범 원용수(53) 준위의 비밀수첩 청탁자 명단에 前 국회의원, 변호사, 중소기업 사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병역의무는 일부 부유층에게 얼마간의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애물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병무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公憤)이 커지자 군 당국은 당초 비공개 방침을 바꾸어 청탁과 함께 돈을 준 6백여 민간인들의 명단을 전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청탁자 명단공개는 병역면제를 사회지도층의 특권인양 남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병역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빼돌려진 자식사랑이란 사회풍토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96년 통계에 따르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도지사, 외청장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96명중 31명이 병역면제(방위병 1명 제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3명중 한명의 비율인 32.3%의 고위공직자가 군경력이 없는 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자제 가운데 사병생활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것을 비롯 국회의원, 부유층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이 국민 평균 18% 보다 높은 20~25%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의 사회지도층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의 아들 4명은 2차대전 당시 모두 전방군무를 자임했으며,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아들 존은 육군소령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역면제 병무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엄격한 병무관리와 함께 사회지도

층 인사들이 성실한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처럼 "신분이 높을수록 사회적 의무도 무겁게 진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식교육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 및 전력약화를 불러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국가적인 범죄인 병무비리, 경증과 공중성이 병명인 병무행정(假若)으로부터 밝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국가가 위태로워지자 산속에서 뛰쳐나와 대항과 낫으로 외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의승(義僧軍)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 병역비리가 '내 자식만 편하면 된다'는 빼돌려진 국가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 제공하는 500마리의 '통일소'를 태운 50대의 트럭이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파주 평화통일사 주지 일선스님이 '통일소'를 보며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 통일소 북송 지켜본 일선스님 저 소떼 따라가 범음 전했으면...

16일 아침 북송길에 오른 통일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는지. 저 소떼의 잔등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북녘동포들에게 무량한 부처님의 범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목이 메어 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다. 비록 축생이지만 사람대신 통일의를 풀기 위해 북송되는 소를 보고 출가 수행자로서 묵묵부답할 수만은 없었다. 목탁을 힘껏 잡고 목이터져라 일념으로 정군을 했다. 너희들이라도 평화통일의 발을 이루는 통일소가 되어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 실망민들의 아픔과 국민의 염원을 씻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이 저며왔다. 노예처럼 온갖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까. 도착하자마자 도살장에 끌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소가 눈에 띄었다. 비록 말을 못하지만 소들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5백여마리의 소들을 일일이 어루만지며 '너희들이 부처님의 범음을 전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전방사로 모든 북한동포의 평화통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평화의 다리(통일대교)'를 건너 북으로 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소들을 향해 통일의 그날이 오면 다시 만날 것을 발원했다. 그리고 1마리의 소가 사람 1백여명의 뉘를 한다 는 말처럼 북녘 땅 곳곳에 퍼져 통일의 장대가 되는 모든 것을 먹여치우길 서원했다. 이번 기도는 20여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입진각에서 평화통일 기도를 한 나에게 특별한 대. 통일소들이 하루빨리 남북간의 벽을 허물고 남으로 되돌아 오길 다시한번 합장 기원해본다.

###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등에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양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양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적화수·원방동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장례발생 즉시연락

불교식 장례 종합서비스

## 장가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배 삼천부 적심(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법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자 4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 재미있는 금강경산책(상·하)
- ▶ 불교 EQ 100
- ▶ 불교 말지 시킴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사경문, 증도가 의 대수